

전북자치도,尹 민생토론회 계기

현안 해결 추진동력 대폭 강화

지난 18일 정읍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중앙부처 관계자, 기업인 및 전북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薪火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텝일곱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지역 도민과 정부부처 담당자 간의 질문·답변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지역의 현안들에 대하여 실 국별로 부처 간의 활동을 통해 설명하였고, 전주~성주고속도로 건설, 전북 R&D특구 활성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일부가 최종 반영돼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 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약 5조4,000여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주~성주 고속도로의 경우 대통령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교통의 한계로 큰 불편함을 겪었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전주~성주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5조4000여억원 규모 전주~성주 고속도로 지원 약속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적지 공급·산업용지 확장 자치도, 내년 국비 확보·사전절차 이행 등 적극 건의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절차 진행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지난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2025년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함께 이번에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성주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교통망 확보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용수공급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산업용지 확대도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생명용지 용수공급 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려되었던 사업추진의 실마리가 완전

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가 공급되면 285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농업용지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으로 기업의 입주수요 급증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문제도 제2산단 신규 개발 추진을 통해 산업용지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첨단산업 육성에도 과반 이상이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대학원 설치를 통한 고급 인력 확보, R&D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완주 수소특화 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사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전북이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온 수소상용차 산업과 탄소 산단을 비롯한 탄소소재 산업의 경

우에도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큰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사업비 증액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 절대 좌초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모든 권역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지시했고, 복지부에서는 2026년 통합재활병원 개원을 목표로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전북특별법의 본격적인 실행에도 힘을 받게 되었다.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산업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전북의 강점인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특례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농생명산업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하며, 두 지구 모두 사업추진에 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에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예산 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특례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의지에 따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도 큰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전주권 광

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및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환원 등 그동안 부처와의 협의회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오던 사업들을 건의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즉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처의 장벽을 넘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을 챙겨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은 47지 현안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새만금에 기업들이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이고, “지역에 대해서 공정한 접근성,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언급으로 화답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김제·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협약 지원 등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많은 현안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가 지원을 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한병도 의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발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출연금을 연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별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 공제하고, 경력단

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해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동사 선정 규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은 같은 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홀플러스지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동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DF) 위탁운동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할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을 책임투자라 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기금은 MBK파트너스를 위탁운동사로 선정하게 된 경우를 소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김기우 기자



22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주최로 제22대 전북 지역구·연고 국회의원 당선 축하 행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 김충국 재경도민회장을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경 전북자치도민회, 전북 지역구·연고 국회의원 당선 축하 행사

김 지사, "고향발전 협조" 당부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전북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축하하며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2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재경 전북 특별자치도민회(회장 김홍국) 주최로 제22대 국회의원 축하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홍국 재경 전북 특별자치도민회장의 환영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격려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 의원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연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익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이춘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병), 김문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이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참석했다.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이학영 제22대 국회의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구

포,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조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등 30여명을 비롯해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출향도민 50여명과 전북 언론인, 기업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 예산 확보, 국토종합상황계획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재경도민 회원들께 언제 어디서든 전북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여 명의 의원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며, “임기 동안 해야 할 역할과 전북자치도와 연대·협력해 힘을 기르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화답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행사에 함께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경기지역도민회, 재경시·군민회 등 출향도민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은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향도민들도 팔팔 뭉쳐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31회 임시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더불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차 본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이 '사과 부란병 및 과수화상병 등 병해 지원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9면>

오광석 집행부에 장마철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며 “무주군의회도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檢 ‘김건희 몰래수사’ 규탄”

민주 이성운 의원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 못할 특혜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몰래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김건희 소환조사’에 온 국민이 우물탕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패싱’ 했다.”고 하며, “어제 보도를 종합해보면 검찰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용산도 불명확한 ‘관할’ 정보보안 청사인 ‘종로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체해병 사건에서는 ‘02-800-7070 작전’을 펴더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는 ‘007 작전’ 하듯 쿠비리에 몰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강력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반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4년이나 걸려 겨우 조사했는데, 김건희 여사 본인 사문과 다른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조사한 것”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특혜 조사방식이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검찰이 소환 조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조사 당했다는 비아냥이 시중에 돌겠습니까?”라며,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공개소환’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일에는 윤석열 국회 탄핵청원 청문회가 진행되며, 김건희 여사는 법사위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라고 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검찰 조사와 달리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김건희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까지 소환소로 김건희 여사 몰래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하며,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승원·서영교·이건태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몰래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